



Russia

블라디보스토크지사

빅데이터가 선정한 러시아의 최애 식재료

요리책 대신 스마트폰!

20여 년 전까지 대부분의 러시아 가정에는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담은 책이 책장에 꽂혀있었다. 하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책이 아닌 컴퓨터,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었다. 러시아의 메인 포털사이트인 안덱스(Yandex)는 검색통계를 활용해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음식, 자주 준비하는 요리, 지역별 음식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.

| 닭고기를 이용한 커트렛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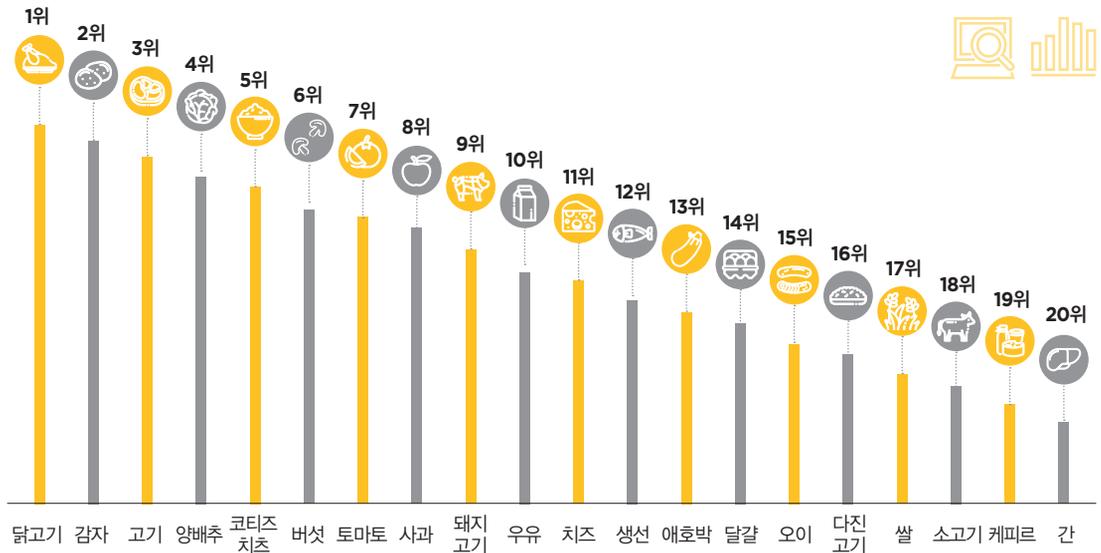
러시아인들의 소울 푸드 - 닭고기와 감자

러시아 주 포털사이트가 선정한 러시아에서 요리에 가장 자주 쓰이는 식재료는 1위 닭고기, 2위 감자였다. 위 포털사이트에서는 매주 76,500건이 넘는 닭고기 요리법이 검색된다. 닭고기를 넣은 치킨 샐러드 레시피가 러시아 전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. 그 다음으로는 오븐감자요리, 고기를 넣은 감자요리가 뒤를 이었다.

| 감자를 이용한 요리 |



| 러시아 포털사이트가 선정한 러시아 식재료 검색순위 20선 |



러시아의 TOP20 요리법

다양한 종류의 요리 중에서 가장 많은 검색 양을 차지한 것은 샐러드였다. 러시아에서 샐러드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이다. 야채에 드레싱을 뿌려 만드는 샐러드 뿐 아니라 갖은 재료를 넣고 마요네즈에 버무려 먹는 샐러드 등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가 있으며, 그중에서 검색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시저 샐러드와 미모사 샐러드였다.

포털사이트를 통해 조리법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녁 식사 요리법을 많이 검색했다. 러시아 식문화 특성 상 아침은 오토밀로 만든 죽, 빵 등으로 간단하게, 점심은 집에서 포장해 온 요리, 저녁은 고기요리를 위주로 섭취하기 때문이다.

| 러시아 포털사이트가 선정한 요리법 검색순위 20선 |

순위	품목	순위	품목
1	샐러드	11	까샤(러시아식 죽)
2	케익	12	캐서롤
3	수프	13	피자
4	베룩(파이)	14	팬케이크
5	소스	15	샐러(과일과 빵을 쌓아 만든 푸딩)
6	블린(러시아식 팬케이크)	16	베라쑈(러시아식 파이)
7	쿠키	17	컵케이크
8	커틀릿	18	롤렛
9	잼	19	플롬(볶음밥)
10	크림	20	치즈케이크

Селедкаподшубой(모피코트 아래의 청어)에서 건포도 잼까지 : 월별로 달라지는 관심 요리

포털사이트에서 분석한 결과, 러시아는 사계절 샐러드를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달마다 각각 다양한 요리에 대해 검색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. 겨울에는 마요네즈와 청어, 비트를 넣은 러시아 샐러드, 셀레드카 포드 슈도이(Селедкаподшубой-모피코트 아래의 청어의 검색이 가장 많았다. 러시아의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가 있는 달에는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의 레시피 검색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. 또한 부활절이 있는 4월에는 부활절 요리, 달걀 칠하는 법 등이 각광받는다.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에는 수제 아이스크림 레시피, Окрошка(오크로슈카-러시아식 냉

수프)를 검색하며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한다.

6월과 7월에는 절인 오이, 장미꽃잎 혹은 건포도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만드는 잼, Компот(컴포트-열매를 발효시켜 만드는 음료) 등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본다. 9월에는 다양한 버섯을 활용해서 요리를 한다. 11월부터는 새해맞이를 시작한다. 이처럼 빅 데이터를 통해 월별 음식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.

| 러시아 샐러드 '모피코트 아래 청어' |



| 러시아식 냉수프 오크로슈카 |



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러시아인 취향 저격

러시아는 과거 다양한 국가와 연합한 상태에서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했고, 현재도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다양한 식문화가 혼재한다. 하지만 빅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월별 음식 선호도나 주로 섭취하는 육류 등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도 한발 더 다가가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이용하되, 한국식 조리법을 접목시킨다면 신선한 제품으로 러시아 식품 시장을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